SECTOR
UPDATE

2025. 11. 3

EV/모빌리티팀

장정훈 Senior Analyst
jhooni.chang@samsung.com

조현렬 Senior Analyst
hyunryul.cho@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NEUTRAL)

(2차전지) 11월 월보 – 혼재된 시그널

- 9월 글로벌 EV 판매, YoY +24%: 미국 +48%, 유럽 +32%, 중국 17% 순
- 한국 셀 업체의 북미 EV용 수요 보수적 전망과 ESS용 수요 눈높이의 차이
- 전방 수요의 혼재된 시그널에 유의할 필요

EV Battery Monthly Tracker (9월 판매 동향)

9월 글로벌 EV 판매, 전년비 24% 증가한 219.7만 대: EV Volumes의 글로벌 EV 판매 집계에 따르면, 9월 글로벌 EV 판매량은 219.7만 대로 전년비 24% 증가함. 지역별로 보면, 유럽에서 43만 대가 팔리며 동기간 33% 증가해 강한 판매세 유지. 중국은 138만대로 전년비 17% 늘어났는데, 2월 이후 판매 성장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 한편 미국은 19만 대로 전년비 48% 급등하며 전월(+26%)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 9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앞두고 선행 수요 영향으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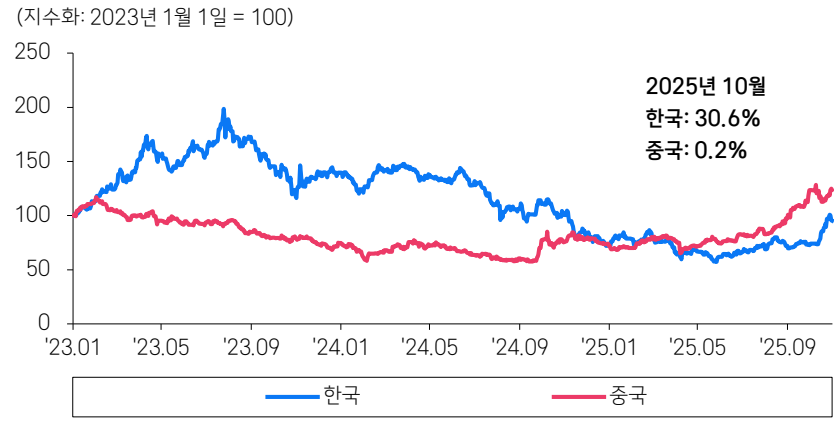
9월 EV 배터리 장착량* 전년비 28% 증가: 9월 EV 배터리 장착량은 111 GWh로 전년비 26% 증가. 배터리 제조사별로 보면 CATL이 전년비 17% 늘어난 35 GWh로 시장 점유율 31%로 1위. BYD는 동기간 +14% 증가한 19 GWh를 기록했는데 점유율은 17%로 전월(20%)에 비해 감소.

한국 업체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4.7 GWh로 전년비 32% 증가했고, 삼성SDI(2.8 GWh)도 동 기간 24% 성장하며 전월에 비해서는 선방. 한편 SK온은 5.4 GWh로 동기간 103%로 큰 폭 증가했는데, 현대차향(공급 비중 47%)과 VW향(공급 비중 30%)이 각각 +56%, +613% 크게 늘어난데 따름.

(*장착량 데이터는 승용차 기준, BEV, PHEV 판매량에다 제조사별 배터리 공급선을 감안해 추정된 것)

(다음 페이지에 계속)

글로벌 배터리 주가 수익률



참고: 각국 밸류체인. 10월 31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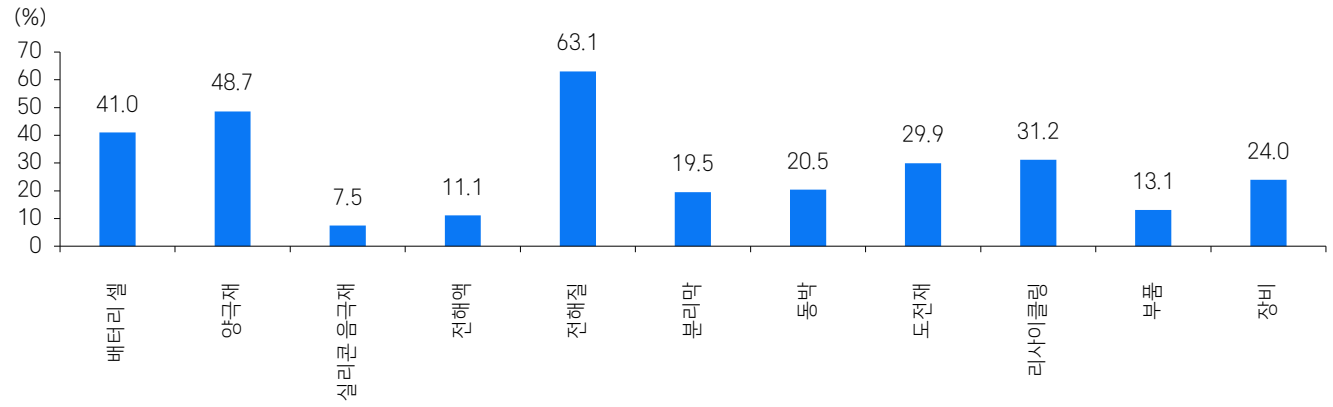
삼성증권

10월 2차전지 주가 성과 및 산업 환경

압도적인 랠리를 보인 한국 주가: 10월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는 +30.6% 급등하며,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중국 밸류체인 주가(+0.2%)를 크게 아웃퍼폼함. 셀 업체간 비교해도 한국(+38%)이 중국(-5%)를 크게 앞섰으며 소재 업체간 비교해도 한국(+24%)이 중국(+1.2%)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 중국은 전달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Jiangxi Ganfeng +13%)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익실현 등의 이유로 약세. 반면, 한국은 10월 들어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ESS 성장 기대감이 그동안 주식시장내 언더퍼폼했던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면서 큰 폭 상승을 경험. 셀 업체에선 북미 ESS의 공격적 캐파 전환을 발표한 삼성SDI(+58%)가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

모두가 상승한 10월 한국 서브섹터의 주가 수익률: 10월 한국 2차전지 서브섹터 성과를 보면 실리콘 음극재(+7.5%) 제외하고는 모두 10%대 이상 주가 수익률을 기록함. 실리콘 음극재가 전월에 +25%로 가장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 수급이 2차전지로 몰리는 가운데 나머지 부진했던 섹터들로 빠르게 투자자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임. 서브섹터 중에서 전해질(+63%) 부문이 크게 아웃퍼폼. 이 중 후성(+51%)은 LiPF6 가격 랠리와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오른 반면, 천보(+75%)는 이렇다할 뉴스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재 밸류체인 중 가장 언더퍼폼했던 종목 중의 하나로 시장의 수급이 채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10월 한국 밸류체인 서브섹터별 주가 성과



참고: 10월 한 달간 수익률 평균
자료: QuantiWise

(9월 배터리 장착량 동향) 한국 업체의 아웃퍼폼 : 9월 글로벌 EV 배터리 장착량 성과를 종합해 보면, 상위 10개사중 중국의 경우 CALB(+162% YoY)가 지난달에 이어 강한 성장세 이어간 반면, 중국의 Tier 1 업체인 CATL(+17% YoY)과 BYD(+14% YoY)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 CATL의 경우는 Geely Auto(비중 12%)향이 +48%로 견조했으나 테슬라향(비중 9%)이 -20%로 감소세가 이어진 탓. BYD는 Xiaomi(비중 7%)향이 지난달에 이어 +66% 성장세로 선방했으나 캡티브 고객인 BYD(비중 79%)향이 11% 성장에 그친데 따름.

한국 업체들은 지역별/고객별 성과가 상이했는데, 3사중에선 SK온이 +103%로 가장 아웃퍼폼. 이는 현대차(비중 47%)향이 +56% 크게 는데다 VW(비중 30%)향이 +613%로 급증했기 때문. 이는 고객사의 생산계획 조정과 판매 전략 변화로 인해 특정 달의 판매가 집중된 영향된 영향으로 풀이. 한편 LGES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는데, 테슬라(비중 38%)향이 +52%로 크게 늘고 GM(비중 23%)향도 북미 시장내 선행 수요 영향으로 +90% 늘었으나 VW(판매 비중 14%)향이 -35% 감소한데 따름.

삼성SDI는 동기간 +24%로 전월에 비해서 선방했는데, 최대 고객사인 BMW(비중 40%)향 물량이 전월(역성장)에 비해 +19%로 성장세로 돌아선 반면, VW그룹(비중 13%)향은 -20%로 여전히 역성장해 유럽 전기차 판매 강세를 못 따라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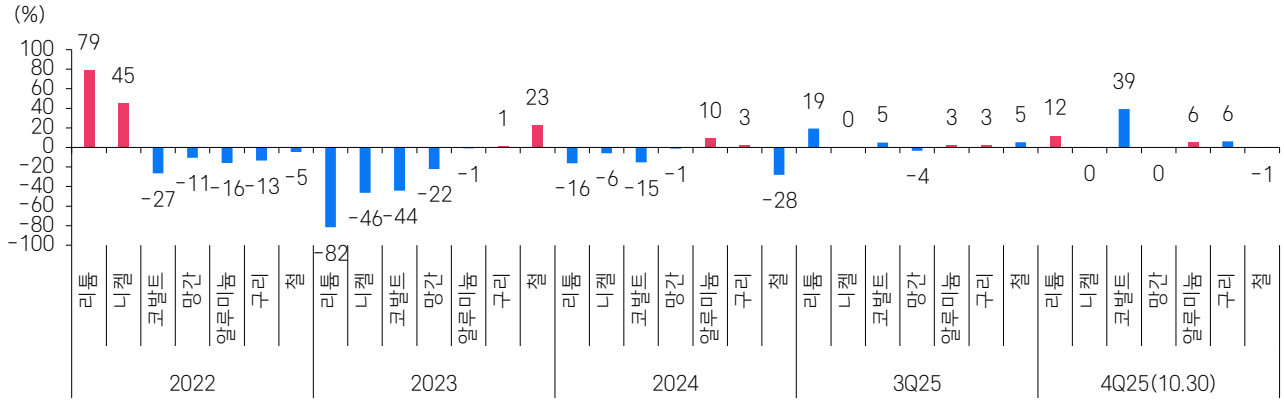
글로벌 배터리 셀 6개사: 2025년 9월 고객 비중 및 장착량 비교

		고객사 1	고객사 2	고객사 3	기타	전체
LGES	고객사	Tesla Inc.	GM	VW Group		
	점유율(%)	38	23	14	25	100
	장착량(MWh)	5,535	3,397	2,115	3,654	14,701
	YoY(%)	*52*	*90*	*-35*		*32*
삼성SDI	고객사	BMW Group	Stellantis	VW Group		
	점유율(%)	40	19	13	28	100
	장착량(MWh)	1,144	553	361	789	2,847
	YoY(%)	*19*	*179*	*-20*		*24*
SK온	고객사	Hyundai Motor	VW Group	Ford		
	점유율(%)	47	30	15	8	100
	장착량(MWh)	2,556	1,607	822	440	5,426
	YoY(%)	*56*	*613*	*69*		*103*
CATL	고객사	Geely Auto Group	VW Group	Tesla Inc.		
	점유율(%)	12	12	9	67	100
	장착량(MWh)	4,093	4,049	3,303	23,521	34,967
	YoY(%)	*48*	*82*	*-28*		*17*
BYD	고객사	BYD	Xiaomi	Xiaopeng		
	점유율(%)	79	6	5	10	100
	장착량(MWh)	14,900	1,224	897	1,884	18,905
	YoY(%)	*11*	*66*	*44*		*14*
Panasonic	고객사	Tesla Inc.	Toyota Motor Corp.	Mazda Motor Corp.		
	점유율(%)	91	7	1	1	100
	장착량(MWh)	6,082	470	63	60	6,675
	YoY(%)	*52*	*-41*	*-9*		*34*

참고: 고객사는 장착량 기준 순
자료: EV Volumes

(10월 메탈 가격 동향) 리튬 가격 조정 후 재상승, 코발트 가격 급등: 10월말 리튬(탄산리튬) 가격은 9월말 대비 12% 상승한 kg당 80위안을 기록함. 2개월 전 CATL의 젠샤워 광산 채굴허가 갱신 실패 후 상승 구간 수준으로 다시 복귀. 한편 코발트 가격은 톤 당 48,160달러를 기록해 동기간 39% 급등함. 이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정해진 물량을 생산해 수출하지 못한 기업의 코발트 수출 할당량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메탈 가격 변화



참고: 4Q25는 10월 30일 기준
자료: KOMIS, 삼성증권

2차전지 산업 이슈와 11월 투자전략

이슈 1. (Midstream) 한국 업체, EV 배터리 수요 보수적 전망 제시: 10월말에 연이어 발표된 셀 3사의 실적 컨퍼런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미 시장의 수요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 수요 둔화를 예상하는 반면, 유럽은 볼륨 및 엔트리 시장 위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북미 EV 판매 감소에 따른 가동률 변화에 따른 AMPC 반영의 감소가 불가피해 업체별로 북미 EV 비중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의 변동폭이 클 전망.

한편, 셀 3사 모두 북미 ESS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북미 배터리 캐파의 ESS로의 라인 전환을 밝힘. 삼성SDI는 북미 합작 캐파의 잔여 라인을 모두 ESS용으로 바꿔 2026년말까지 30 GWh로 확대한다는 입장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 기반 ESS 중심에서 2027년말에서 2028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각형 ESS 양산까지 확대 예상.

셀 3사 3분기 실적 특징 및 EV 부문 업황 전망

	매출(조원)	영업익(십억원)	3분기 특징	4분기 및 중장기 EV 시장 전망
LG에너지솔루션	5.7	601.3	*AMPC(3,655억원)와 보상금 반영 *EV 매출 감소했으나 ESS/소형 매출 성장	* 북미 EV수요 둔화 기조 *2030년 북미 EV 침투율은 20% 중반으로 예측 하향 조정
삼성SDI	3.1	-591.3	*EV향 매출 감소로 가동률 및 AMPC 감소 *EV 판매 보상금 반영 이연 + ESS 관세 영향	*북미 EV 수요 둔화, 유럽은 볼륨/엔트리 중심 수요 확대 전망
SK온*	1.8	-124.8	*AMPC(1,731억원)와 보상금 반영 *EV 매출 감소	*EV용 판매 감소 (유럽은 호조, 미국은 비우호적 환경)

참고: * 배터리 부문
자료: 각 사 IR, 언론보도 종합, 삼성증권 정리

셀 3사 ESS 사업부문 비중 및 운용 전망

	3분기 매출 비중(%)	3분기 이슈	북미 ESS 캐파 현황	북미 ESS 케미스트리	북미 ESS 폼팩터
LG에너지솔루션	10%	미국 ESS 수주 급증(50→120 GWh)	17 GWh('25) → 30+@ GWh('26)	LFP(30 +@ GWh)	파우치, 각형
삼성SDI	35%	한국 ESS 중앙계약 1차 입찰 80% 차지	7 GWh('25) → 30 GWh('26)	NCA, LFP(23GWh)	각형
SK온	0%	플랫아이언과 1GWh 수주	1 GWh('26)	LFP	파우치

참고: 2차전지 매출 중 ESS 사업부 비중
자료: 각 사 IR, 언론보도 종합, 삼성증권 정리

북미 ESS 시장 성장 눈높이의 차이: 한국의 셀 제조사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북미 ESS 시장 성장에 기대감을 밝힘. 삼성SDI는 북미 ESS 시장 규모를 올해 80 GWh 규모에서 2030년 130 GWh로 커질 것으로 언급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비교 시점은 다르나 2024년 60 GWh 규모에서 2028년 150 GWh 규모로 성장하는 것으로 제시함. 삼성SDI 기준 북미 ESS 수요는 향후 5년간 10% 커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단기간 26% 성장을 전망한 셈. 대외 시장 조사 기관의 인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셀 업체 자체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북미 ESS 수요를 따져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SDI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시장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출하 기준과 설치 기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시장 조사 기관: 한편, 시장 조사기관의 전망치에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인용 조사 기관 중의 하나인 BNEF의 경우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대해 2025년 45 GWh에서 2030년 76 GWh로 제시한 반면, 다른 시장 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기간 97 GWh에서 179 GWh로 전망함. 양 기관만 놓고 보면 북미 ESS 시장 수요가 2배 이상 차이가 남.

BNEF는 ESS 배터리 수요를 매해 추정 연도의 ESS시장에 얼마만큼 캐파가 추가되는지를 따지는 반면 SNE 리서치는 ESS용 배터리 출하량을 추정해 제시하는 것으로 보임. 시장 ESS 규모에 대한 추정 방식과 범위에 대한 방법론을 자세히 따져볼 수 없지만 당사의 설명이 맞다면 ESS용으로 출하된 배터리가 일정 시점을 두고 ESS용 캐파에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SNE리서치의 2024년 ESS 수요(78 GWh)는 2030년 BNEF의 ESS 수요(76 GWh)와 비슷한데, ESS용 배터리를 판매하고 나서 ESS용으로 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것이 5년 넘게 걸리는 셈. 하지만 ESS가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ESS 설치 업자가 구매후 재고를 지나치게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보면, **'출하' 기준의 SNE리서치의 전망치가 공격적이거나 '설치' 기준의 BNEF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

한편,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의 차이를 떠나 성장성을 놓고 보면 BNEF나 SNE리서치 모두 연평균 성장률 11~13%대를 제시하고 있어, 성장세에 대한 견해는 유사.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비교 기간은 다르나 북미 ESS 시장이 단기간 26%로 큰 폭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기간 BNEF의 추정 연간 성장률(15%)과 비교해도 공격적 입장임.

북미 ESS 수요 전망, 기관별 비교

(GWh, %)	구분	2024	2025	2028	2030	CAGR('25~'30)	CAGR('24~'28)
시장 조사기관	BNEF	35	45	61	76	11%	15%
	SNE리서치	78	97	na	179	13%	na
셀 업체	삼성SDI	na	80	na	130	10%	na
	LG에너지솔루션	60	na	150*	na	na	26%

참고: *이전 110GWh
자료: BNEF, 각사 발표, 언론보도 종합, 삼성증권 정리

이슈 2. (정책) 미국의 대중 관세 10% 인하로 인한 중국 배터리 관세: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APEC 기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함. 이를 반영하면 중국산 EV 배터리는 미국내 수입 가격이 73.4%에서 63.4%로 내려가게 됨. 중국산 ESS 배터리의 경우는 올해는 30.9%, 2026년엔 48.4%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 미국 현지에서 제조되는 한국의 배터리가 무관세인 점만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산 EV 배터리는 가격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APEC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EV/ESS 배터리 관세 변화

관세 유형	EV 배터리	ESS 배터리	
	2025년	2025년	2026년
기본 수입 관세	3.4%	3.4%	3.4%
Section 301 관세	25%	7.50%	25%
대중 수입 관세*	10%	10%	10%
Section 232 관세 (발효: May 3, 2025)	25%	0%(비적용)	0%(비적용)
상호 관세 (발효: April 3, 2025)	0% (제외)	10%	10%
최종 관세	63.4%	30.9%	48.4%

참고: *2025년 10월 30일 APEC 미중 정상회담이후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
자료: BNEF, 삼성증권 추정

하지만 기존 관세율(73.4%)인 상황에서도 GM은 중국 LFP 배터리를 수입해 한국 업체가 현지 LFP셀로 양산 대응하기 전인 2027년말까지 차세대 쉐보레 Bolt EV 차종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 배경으로 당사는 EV 배터리 공급 지형이 한국이 하이니켈 삼원계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중

국의 LFP 가격은 확실한 가격의 이점이 있고, 미국 내 제조 경비 및 감가상각 등 고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국 공급선이 가격 인상 요인을 일부만 흡수하면 공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따져본 바 있음[1].

이제 중국산 EV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63.4%로 내려가게 되면 GM과 같은 미국 완성차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 별로 따져볼 수 있음. 시나리오 3과 같이 미국 현지 제조 비용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20% 높다고 가정하면 미국 현지 생산 한국 업체의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수입해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게 됨. 따라서 대중국 관세 변화는 한국 업체로선 달갑지 않은 부분.

중국 EV 배터리 관세 부담 시나리오

셀 구분	글로벌 평균 가격($)*	시나리오	미국 현지 제조 비용 증가율	공급망 할인율	조정 가격($)**	관세율	관세후 가격($)
NMC811	90	시나리오 1	10%		99	0%	99
LFP	63			4%	60	63.4%	99
NMC811	90	시나리오 2	0%		90	0%	90
LFP	63			12%	55	63.4%	90
NMC811	90	시나리오 3	20%		108	0%	108
LFP	63			0%	63	63.4%	103

참고: * BNEF 2024년 4분기 평균 가격 서베이. **NMC811은 미국 현지 비용 증가율 반영, LFP는 공급망 할인율 감안.
자료: BNEF, 삼성증권 추정

이슈 3. (Upstream) 리튬 가격의 재반등: 7월 시작된 랠리가 8월 중순 조정을 받기 시작해 2개월간 하향 조정되었던 리튬 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재반등 해 10월말 리튬 가격은 kg당 80위안을 기록함. 6월의 전저점(kg당 58위안)을 깨지 않고 저점 수준을 70위안대로 높인 상황에서 반등한 것. 앞서의 랠리와 조정이 중국 리튬 광산의 가동 중단과 재가동 기대감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번 반등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해석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음. 하나는 중국 정부의 ESS용 투자 확대 조치로 인한 메탈 수요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CATL의 젠샤워 광산이 여전히 재가동이 안되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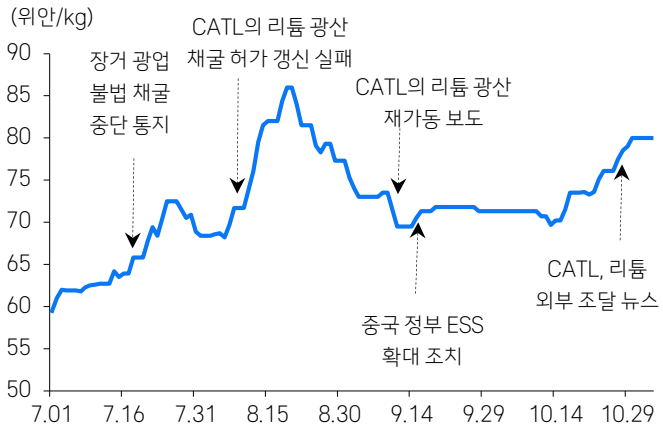
중국 정부가 9월 발표한 ESS용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2] 따르면 2027년까지 ESS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180 GW[3]로 늘린다는 계획. 이를 통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간헐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그리드에 통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리튬과 같은 수요가 늘어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경. 한편 8월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CATL의 젠샤워 광산은 채굴 면허 갱신을 추진 중이나 재가동 일정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CATL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리튬 원광을 조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또다른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거론됨. 전자는 중기적으로 리튬 수급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후자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지만 투기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 (2 차전지)시대 41 – 관세후, 중국산 배터리 소싱(2025.8.11)
[2] 중국 국가발전개혁우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2025 년부터 2027 년까지 발표한 업무 계획.
[3] BNEF 에 따르면 중국의 ESS 규모는 76.9 GW (3 월 기준)

리튬과 니켈 가격 변동추이

참고: 10월 9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7월 이후 리튬 가격 추이와 중국 광산 이벤트



참고: 10월 9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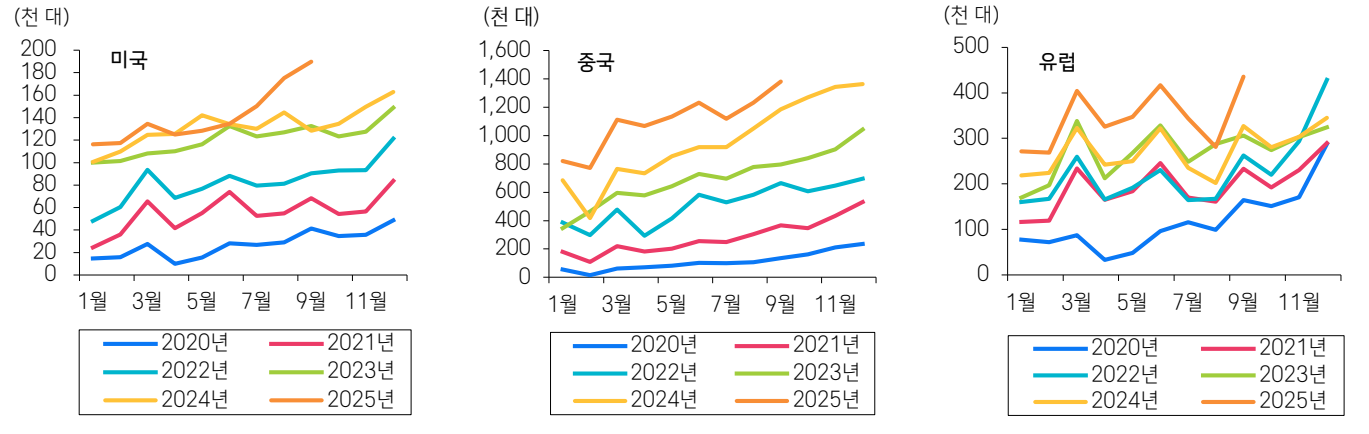
11월 투자전략 – 미국 전방 수요의 혼재된 시그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의 10월 북미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 또한 연말을 앞두고 10월 랠리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 증가에 따른 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여전히 시장내 유동성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미국 ITC의 최종판정 등 정책 이벤트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예상됨.

글로벌 EV 출하량 추이

지역		2024년				2025년								
(천 대)	종류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미주*	BEV	136	140	155	165	117	110	123	119	127	137	152	172	185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34	41	42	50	37	40	50	49	46	42	48	51	49
총계		**170**	**181**	**197**	**214**	**154**	**150**	**173**	**168**	**172**	**179**	**200**	**223**	**235**
유럽	BEV	238	191	211	242	188	189	275	215	227	288	222	192	295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89	89	92	103	84	80	129	111	120	129	122	89	141
총계		**327**	**280**	**303**	**345**	**272**	**269**	**404**	**326**	**347**	**417**	**344**	**281**	**436**
중국	BEV	692	715	796	787	455	468	712	666	661	728	673	758	884
	PHEV	494	555	547	577	366	305	401	402	474	504	447	474	498
총계		**1,186**	**1,270**	**1,343**	**1,363**	**821**	**772**	**1,113**	**1,068**	**1,135**	**1,231**	**1,120**	**1,232**	**1,382**
미국	BEV	106	108	122	132	92	90	98	93	99	107	120	142	158
	FCEV	0	0	0	0	0	0	0	0	0	0	0	0	0
	PHEV	22	27	28	31	24	27	36	32	30	27	30	34	32
총계		**128**	**135**	**150**	**163**	**116**	**118**	**134**	**125**	**128**	**135**	**150**	**175**	**190**
아시아**	BEV	749	780	873	857	513	539	801	738	754	827	758	855	993
	FCEV	0	0	0	0	0	0	0	0	0	0	1	1	1
	PHEV	506	567	560	589	379	320	418	416	487	521	460	486	511
총계		**1,254**	**1,347**	**1,434**	**1,447**	**893**	**859**	**1,219**	**1,154**	**1,241**	**1,348**	**1,220**	**1,342**	**1,505**
아프리카	BEV	11	6	7	10	12	7	11	8	10	11	11	12	17
	PHEV	3	2	2	3	5	4	5	4	6	4	5	5	5
총계		**14**	**9**	**9**	**13**	**17**	**11**	**16**	**13**	**16**	**15**	**16**	**17**	**23**
전 세계 판매량		**1,765**	**1,817**	**1,943**	**2,019**	**1,336**	**1,289**	**1,813**	**1,660**	**1,776**	**1,959**	**1,780**	**1,864**	**2,198**

참고: 승용차 기준, * 미국 포함 판매량, ** 중국 포함 판매량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전기차 판매량 추이



참고: 승용차 기준, BEV+PHEV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9월 글로벌 OEM 전기차 판매량 Top 10

Rank	제조사	2024년				2025년								
(천 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BYD	416	475	446	447	268	270	380	367	362	431	340	362	422
2	Tesla Inc.	192	121	173	202	93	94	150	82	116	185	122	161	214
3	Geely Auto Group	104	124	136	128	128	107	130	134	147	133	137	155	168
4	VW Group	97	100	102	103	90	85	129	112	119	121	118	99	130
5	GM	110	124	142	144	66	65	102	107	93	94	101	118	128
6	Changan Automobile Group	54	84	105	75	59	48	80	69	88	91	77	83	85
7	Chery Automobile	62	64	71	91	61	47	61	63	75	75	75	76	84
8	Hyundai Motor	47	45	48	42	39	44	59	51	52	51	60	59	68
9	Leap Motor	33	36	40	41	24	23	36	43	43	47	51	54	64
10	BMW Group	49	51	57	63	50	51	63	52	53	58	55	45	54

참고: BEV+PHEV+FCEV 승용차 기준;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월간 배터리 장착량 Top 10

(MWh)	기업	2024년				2025년								
순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CATL	29,982	27,019	30,367	31,641	20,386	19,192	29,055	24,784	28,142	29,944	26,720	28,975	34,967
2	BYD	16,567	17,456	17,228	17,971	12,335	14,247	17,690	17,699	17,704	21,012	16,829	17,118	18,905
3	LG Energy Solution	11,139	9,335	11,785	13,358	8,075	8,045	12,693	9,576	11,191	13,202	11,800	10,958	14,701
4	CALB	3,614	4,112	4,608	5,024	3,122	2,440	4,225	4,567	5,348	5,762	6,042	7,410	9,463
5	Panasonic	4,971	5,499	5,566	5,588	4,601	5,626	4,015	4,142	4,446	5,700	5,227	5,699	6,675
6	SK On	2,679	2,719	3,081	3,470	2,572	2,657	3,436	2,703	2,813	2,980	3,824	4,715	5,426
7	Samsung SDI	2,289	2,320	2,505	2,818	1,963	2,210	2,933	2,546	2,534	2,571	2,372	2,418	2,847
8	Gotion	1,636	2,054	2,432	2,400	1,641	2,136	1,963	2,086	2,071	2,169	2,264	2,579	2,796
9	SVOLT	1,942	1,960	2,179	2,124	2,102	1,789	2,154	2,025	2,379	2,288	2,553	2,427	2,668
10	Sunwoda	2,150	2,244	2,142	2,202	981	918	1,784	2,006	1,986	1,851	2,032	2,297	2,431

자료: EV Volumes, 삼성증권

배터리 셀 및 재료업체 생산 캐파

(GWh, 천 톤)	기업	2022	2023	2024	2025E	2026E
셀	삼성SDI	87	101	112	152	206
	LG에너지솔루션	200	275	298	352	423
	SK이노베이션	88	88	118	135	209
	CATL*	388	525	685	755	901
	Panasonic	46	54	64	94	94
양극재	LG화학	90	120	140	150	170
	에코프로비엠	125	190	226	280	379
	엘앤에프	100	160	210	210	260
	포스코퓨처엠	40	155	185	315	315
	코스모신소재	20	20	30	60	90
음극재	포스코퓨처엠	82	82	92	132	132
동박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0	60	70	70	80
	솔루스 첨단소재	15	15	38	58	63
	SKC	52	96	96	121	121

참고: * JV 포함 Capa, 셀업체 Capa는 중대형(EV+ESS용), GWh 기준, 재료업체 Capa는 천 톤 기준; 자료: 각 사 IR,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추정, BNEF, CITIC

글로벌 2차전지 밸류체인 밸류에이션

국가	밸류체인	기업	시가총액	주가 수익률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영업이익률 (%)		EPS 성장률 (%)	
			(십억원)	1개월	6개월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한국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111,618	19.5	48.8	n/a	138.3	5.5	5.2	27.0	19.8	-1.8	2.4	7.0	11.2	nm	nm
		삼성SDI*	26,553	59.3	89.5	n/a	69.5	1.3	1.2	60.8	14.8	-3.0	1.9	-11.9	1.9	nm	nm
		SK이노베이션*	22,078	24.5	39.8	n/a	517.9	0.9	0.9	21.1	13.2	-5.5	0.0	0.1	2.4	nm	nm
	양극재	LG화학*	28,131	43.6	89.8	n/a	24.9	0.9	0.9	9.4	7.2	0.0	3.0	4.2	7.1	nm	nm
		엘앤에프*	4,543	69.5	91.0	n/a	180.0	9.3	8.7	n/a	34.6	-49.0	3.6	-10.4	3.1	nm	nm
		에코프로비엠*	16,030	40.9	56.8	651.2	375.1	9.7	9.4	71.2	57.8	1.4	2.4	3.5	3.6	nm	73.6
		코스모신소재	1,804	39.3	43.0	315.3	58.4	3.6	3.4	n/a	n/a	1.1	6.0	2.3	6.4	-67.6	440.3
	양/음극재	포스코퓨처엠*	19,835	52.2	84.2	443.1	266.0	5.4	5.2	70.8	53.9	1.1	2.0	2.6	3.5	nm	66.6
	실리콘음극재	대주전자재료	1,178	15.6	-7.5	60.4	39.4	4.6	4.1	33.2	23.0	8.1	10.9	10.3	13.6	-49.1	53.4
		한솔케미칼	2,698	9.2	106.6	17.3	15.3	2.4	2.1	12.7	10.8	14.8	14.8	19.4	20.7	25.5	13.1
		동진쎄미캠	2,193	-3.1	4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전해액	솔브레인	2,197	-1.7	58.7	19.0	13.3	2.0	1.8	9.4	6.0	11.0	13.8	15.5	19.7	-2.6	42.5
		동화기업	506	13.5	18.9	n/a	n/a	0.6	0.6	22.7	12.3	-1.3	-1.7	-0.4	2.2	nm	nm
		엔켐	1,926	27.1	13.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전해질	후성	986	51.7	109.8	n/a	53.1	3.2	3.0	19.8	16.8	-4.1	5.9	5.3	6.2	nm	nm
		천보*	737	65.2	106.2	n/a	n/a	2.0	2.1	35.1	25.5	-0.9	0.1	4.9	3.9	nm	nm
	분리막	SKIET*	2,548	16.0	37.2	n/a	n/a	1.1	1.1	n/a	38.8	-5.0	-2.3	-60.7	-17.1	nm	nm
		더블유씨피	272	23.9	-14.5	n/a	n/a	0.3	0.3	n/a	16.0	-11.4	-6.4	-71.0	-4.0	nm	nm
	일렉포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375	17.4	15.9	n/a	n/a	0.9	0.9	n/a	19.5	-7.9	-0.8	-15.4	-0.8	nm	nm
		솔루스첨단소재	653	20.8	10.2	n/a	111.4	1.3	1.3	176.1	20.0	-10.3	1.1	-11.3	1.0	nm	nm
		SKC*	4,919	25.9	27.9	n/a	n/a	4.5	4.9	797.8	42.1	-20.5	-10.3	-9.5	0.0	nm	nm
	도전재	나노신소재	823	45.9	24.4	123.9	59.3	3.3	3.1	43.3	24.4	2.6	5.3	5.4	11.8	nm	109.0
		제이오	282	19.2	-4.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리사이클	성일하이텍	526	20.6	28.7	n/a	108.3	3.7	4.0	n/a	24.4	-33.9	8.8	-23.0	2.8	nm	nm
		새빗켐	193	42.7	117.9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부품	상아프론테크	297	11.3	22.0	60.4	36.9	1.5	1.5	18.1	13.9	2.5	4.1	3.5	6.0	-22.3	63.8
		신흥에스이씨*	211	12.7	27.3	n/a	21.9	0.7	0.7	9.7	7.4	-1.4	3.0	0.5	4.1	nm	nm
		상신이디피	170	11.4	69.8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장비	에스에프에이*	892	5.3	23.9	9.9	6.6	0.8	0.7	5.5	4.0	9.5	12.9	8.0	10.3	nm	50.9
		하나기술	241	12.3	50.6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피엔티	1,042	24.5	8.3	12.2	9.3	n/a	n/a	n/a	n/a	14.0	14.0	14.9	12.7	-42.2	30.5
		원익피앤이	182	35.9	79.2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m	n/a
	기타	에코프로	12,424	93.2	82.3	n/a	129.7	7.9	7.5	74.2	41.6	-1.0	5.9	2.2	4.6	nm	nm
		포스코홀딩스*	25,130	13.9	21.7	22.6	12.7	0.4	0.4	6.6	5.7	2.0	3.4	3.4	4.7	-4.9	78.3
중국	배터리 셀	CATL	358,701	-3.3	67.9	25.2	20.1	5.7	4.9	15.9	12.3	23.7	25.0	18.6	19.1	37.7	25.5
		BYD	177,478	-8.0	-21.1	20.7	15.0	3.6	3.1	7.4	5.7	18.8	19.9	5.0	5.6	1.9	38.1
		Gotion High Tech	16,437	-2.5	120.3	37.4	36.0	2.9	2.7	20.0	16.6	7.7	7.6	5.7	5.2	90.0	3.7
		EVE Energy	34,041	-8.6	102.5	36.4	22.5	4.2	3.7	22.6	14.9	11.6	16.6	7.9	9.8	21.2	61.6
	리튬	Tianqi Lithium	17,214	12.3	85.4	108.3	42.1	2.1	2.0	19.1	12.4	1.8	4.4	37.5	42.7	nm	157.4
		Jiangxi Ganfeng	26,451	13.4	130.5	381.3	76.5	3.2	3.1	54.5	32.0	1.1	3.7	4.0	9.3	nm	397.8
	코발트	Nanjing Hanrui	3,076	-11.5	56.7	43.9	41.7	2.6	2.5	n/a	n/a	6.0	6.0	7.2	5.9	78.6	5.3
		Zhejiang Huayou	24,583	-1.7	91.3	19.8	16.6	2.8	2.4	12.1	10.1	14.2	15.1	11.2	12.0	38.9	19.0
		China Molybdenum	71,649	8.5	141.4	20.2	17.0	4.4	3.7	8.8	7.3	23.0	23.4	15.5	17.8	42.1	18.5
	양/음극재	Shenzhen Dynanonic	2,576	-0.8	64.0	n/a	55.6	2.5	2.4	67.6	16.3	-10.3	3.5	-6.6	3.6	nm	nm
		Beijing Easpring	7,533	4.2	82.7	48.2	36.2	2.6	2.5	27.0	19.7	5.5	6.8	7.7	8.3	62.6	33.0
		Ningbo Shanshan	6,187	-13.5	96.1	41.7	29.6	1.4	1.3	16.9	15.2	3.1	4.4	5.1	5.6	nm	40.9
	전해액	Guangzhou Tinci	15,269	4.5	128.1	79.3	51.5	5.7	5.3	34.7	25.5	6.6	10.1	7.2	9.5	112.5	53.8
		Shenzhen Capchem	7,943	-0.5	67.1	33.3	25.2	3.8	3.4	20.8	16.0	11.2	13.6	14.0	14.9	33.6	32.3
	분리막	CangzhouMingzhu Plastic	1,537	14.8	35.1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Shenzhen Senior	3,843	-2.3	56.9	57.0	30.3	1.9	1.8	20.5	13.8	3.3	5.9	9.7	15.0	-2.1	88.0

국가	밸류체인	기업	시가총액	주가 수익률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영업이익률 (%)		EPS 성장률 (%)	
			(십억원)	1개월	6개월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일본	배터리 셀	Panasonic	40,778	6.0	6.6	13.2	13.5	0.9	0.8	6.1	7.1	6.8	5.9	4.7	4.5	-22.4	-8.6
		GS Yuasa	4,006	22.3	74.4	15.6	12.4	1.2	1.1	7.3	6.5	8.1	10.0	8.1	8.8	-18.8	17.9
	양극재	Sumitomo Metal Mining	13,639	3.5	63.0	32.8	17.5	0.8	0.7	21.7	15.7	2.5	4.5	2.2	4.2	-23.4	82.5
		Tanaka Chemical	126	5.5	-6.1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음극재	Tokai Carbon	2,147	0.2	11.9	15.8	11.5	0.7	0.7	n/a	n/a	4.8	5.6	8.4	10.1	nm	37.6
		Nippon Carbon	474	1.5	4.5	8.1	14.1	n/a	n/a	n/a	n/a	n/a	n/a	13.0	14.7	51.8	-42.4
		Showa Denko	10,315	9.2	126.1	36.4	15.7	1.7	1.5	11.3	8.5	4.7	10.6	4.0	7.8	-57.3	131.0
	전해액	Stella Chemifa	491	0.4	9.2	14.1	15.6	n/a	n/a	n/a	n/a	7.7	6.8	12.5	13.0	101.0	-12.0
	분리막	Sumitomo Chemical	6,947	-4.5	26.9	24.1	17.8	0.8	0.8	6.4	7.0	2.7	5.1	6.8	5.5	nm	32.1
		Ashai Kasei	14,918	1.8	17.1	14.0	12.1	0.9	0.8	6.7	6.0	6.2	6.9	6.7	7.3	194.1	7.9
		W-Scope	129	10.5	0.4	n/a	n/a	0.3	n/a	2.3	n/a	-0.1	n/a	11.1	n/a	nm	nm
		Toray Industries	14,258	-1.7	3.4	16.4	17.0	0.8	0.8	8.7	8.3	5.1	5.0	5.3	5.4	355.6	-8.8
		Nippon Kodoshi	269	24.4	55.1	16.1	12.0	1.2	1.1	n/a	n/a	7.6	n/a	15.6	18.9	29.1	28.9
	일렉포일	Furukawa	7,181	23.9	148.9	27.0	20.3	2.2	2.1	13.1	11.0	8.8	10.8	3.6	4.5	386.8	23.8
미국	전기차	Tesla	2,162,860	4.7	59.0	274.9	203.5	19.0	17.4	116.1	98.9	7.0	8.0	4.9	6.4	-22.4	35.1
	리튬	Albemarle	16,466	12.1	62.9	n/a	294.1	1.2	1.2	16.3	14.3	-1.2	1.0	1.9	2.9	nm	nm
		SQM	19,139	9.8	44.0	23.0	15.3	2.5	2.2	11.2	8.5	11.2	15.6	24.6	27.9	n/a	50.8
		FMC	2,699	-51.7	-59.8	4.9	5.2	0.4	0.4	6.1	6.2	8.9	8.1	17.0	16.7	17.9	-5.3
기타	양극재	Umicore S.A	6,694	7.5	101.7	13.6	12.4	1.9	1.8	7.0	6.8	13.9	13.2	15.4	8.2	nm	9.6

참고: 10월 31일 종가 기준, *커버리지 종목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1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